

# 벼 못자리용 상토 구매 싸고

〈모판홍〉

## 합평농협-업체 '마찰'

### 농협 "6개 업체 담합" 2곳과 수의계약

### 업체 "공정성 결여...재입찰 하라" 반발

벼 못자리용 상토(모판홍) 구매를 둘러싸고 합평농협과 참여 업체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합평농협은 최근 농민들에게 고품질의 상토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관내 5개 농협으로부터 상토 일괄 구매를 일임받아 6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업체들은 고객 장려금 제시 등 농협의 입찰 조건에 반발해 농협 계통기적으로 입찰가를 제출, 1차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대해 합평농협은 업체들이 담합했다고 판단, 6개 업체의 입찰자격을 박탈한 것은 물론 차순위 업체까지 배제한 상태에서 K·S사 2개 업체와 지난달 말 농협중앙회 계통가격인 40

ℓ 기준 5천150원과 5천250원에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공식 농협수수료 3% 외에 두 업체가 전체 구매금액의 11%와 14%를 장려금(9천200여만원)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5천원대의 상토를 군과 농협 보조 등으로 1천400원만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차 입찰 참여업체들은 이 같은 업체 선정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입찰 참가업체 대표 H모(45)씨는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체를 배제시킨 것은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됐다"며 "농민과 군 관계자, 농협, 상토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인 구매절차에 의해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일부 농민들도 기존 업체가 아닌 신규 업체가 공급하는 상토 품질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농민 정모(월야면·47)씨는 "구입 비용이 저렴하긴 하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토를 농협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구매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평농협 관계자는 "상토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등 말쑥이 많아 이를 예방하고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이 나섰다"며 "제품 구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농민들의 민원은 농협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평지역은 올해 군 40%, 지역농협 20% 보조와 농가부담 40%에 의해 14만4천여 포의 상토가 판매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 강진군 보건소 89명 '사랑의 헌혈'



강진군 보건소가 13일 동절기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지역주민 등 140명이 참가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이 헌혈했다.

〈강진군 제공〉

# '엠보이스 콜센터' 대규모 채용

## 나주 일자리 활기

### 상담원 등 120명

남양유업에 이어 '엠보이스 콜센터'가 대규모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나주지역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엠보이스 텔레소프트(주)는 다음달 문을 여는 100석 규모의 나주 콜센터에서 하나로통신 서비스상품 안내 리서치 등 상담 활동을 벌일 팀장과 상담원 120명을 채용한다.

자격기준은 고졸 이상의 40세 미만 남녀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아 29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엠보이스 텔레소프트(주)는 지난해 9월 나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영산포 공영 버스터미널 3층에 개소를 앞두고 사무실 내부 설비와 인테리어 막바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시는 이번 콜센터 개소로 연간 18억원의 직접소득과 함께 콜센터가 자리한 구 도심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인력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역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인력채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의(www.emvoice.com, 070-7505-5002, 061-332-9191)

한편 4천여명이 둘러 50대 1의 경쟁률을 받아 29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엠보이스 텔레소프트(주)는 지난해 9월 나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영산포 공영 버스터미널 3층에 개소를 앞두고 사무실 내부 설비와 인테리어 막바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

# 전남 동부권 인구 순천·광양↑ 여수↓

전남 동부권 3개시 가운데 순천과 광양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여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인구는 지난 1월 말 현재 27만6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68명 보다 565명(0.2%)이 증가했다.

광양시도 1월 말 인구가 13만8천804명으로 지난해에 13만8천129명

보다 675명(0.4%)이 늘었다.

반면 여수의 경우는 1월 말 인구가 29만5천366명으로 지난해의 29만7천111명에 비해 1천745명(0.6%)이 감소했다.

순천시 인구가 증가한 것은 교육과 문화 등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며, 광양시는 포스코 후관공장

건설과 오리엔트조선, SNS 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양시는 '광양시 인구 늘리기 조례'를 지난 12월 제정, 공포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지병종합

# '남근 고추' 보셨나요?

## 해남군, 종자 1알 1천원 인기



500그루로 늘려 관상용 또는 술 안주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시험재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 고추처럼 아삭거리고 조금 매운 편인 피터 고추는 현재 안주용 샘플로 테스트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남군 옥천면에서 '남근 고추'로 불리는 이색적인 고추가 재배되고 있다. 이 고추는 멕시코 자생 고추인 '피터 고추(peter pepper)'로 열매 모양이 특이해 관심을 끈다. 피터 고추는 희귀한 모양 때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종자가 1알에 1천원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을 뿐 해남에서처럼 종자를 받기 위해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농가에서도 아직은 생소한 품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16그루에서 종자를 받을 계획이며 내년에

# "갈두리 → 망골리로 불러주세요"

## 해남군, 7곳 명칭 변경

"갈두리 대신 망골리로 불러주세요."

해남군이 일제강점기 시절 지명이 왜곡됐거나 역사적 전통 계승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행정구역 7곳의 명칭을 새롭게 바꿨다.

군은 대표 관광지인 송지면 '갈두리'를 인지도가 높은 '망골리'로 개칭했으며, 명량대첩의 역사적 유래가 깊은 문내면 '명안리(鳴雁里)'는 '명량리(鳴梁里)'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계곡면 여수리(呂水里)는 빛나는 물이 흐른다는 뜻의 여수리(麗水里)로, 마산면 노하리(路下里)는 갈대밭이 둘러싸고 있다는 뜻의 노하리(露河里)로, 문내면 신정리(新汀里)는 마을 주변 산세가 학처럼 생겼다는 뜻을 담아 학동리(鶴洞里)로 각각 명칭을 회복시켰다.

이와함께 해남읍 조막리(造幕里)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옥동리(玉東里)로 변경하는 한편 화원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내주리와 외주리는 주광리로 통합했다.

한편 해남군은 이번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한 개 마을이 통합됨에 따라 행정리도 기존 513개에서 512개로 줄어들었다.

／해남=박진표 기자 lucky@

# 구례 여성문화회관 새 단장

## 요리교육장 등 설치

구례 여성문화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됐다. 구례군은 지난 12월 서기동 군수를 비롯해 최성욱 군의장, 김종영 부의장, 이영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구례군은 2억2천만원을 투자

해 지붕과 벽면 누수방지공사와 요리교육장 및 영상교육장, 소규모 보육실 등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보수했다.

지난 97년 문을 연 구례 여성문화회관은 그동안 지붕과 벽면의 누수가 심하고 동절기에는 하수관이 동파되는 등 시설이 노후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새 얼굴

## "장흥 농·축산물 판로 개척에 앞장"

### 문명식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신임 문명식(52)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도움 주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 출신인 문 지부장은 농협

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75년 농협에 입사해 광주비엔날레 지점장, 강진군지부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태숙 씨와 사이에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등산. /장흥=김용기기자 kykim@

2008년 (제6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모집인원: 1. 1차 10명, 2차 10명, 3차 10명, 4차 10명, 5차 10명, 6차 10명, 7차 10명, 8차 10명, 9차 10명, 10차 10명

신청기간: 2008. 2. 14(수) ~ 2008. 2. 20(수) 18:00(수업료)까지

시험장소: 1. 1차 10명, 2차 10명, 3차 10명, 4차 10명, 5차 10명, 6차 10명, 7차 10명, 8차 10명, 9차 10명, 10차 10명

문의: 02-237-8301

40년 전통의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보유! **본인출신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3월 3일

광주고시학원

02-237-8301

正統日食 **미도**

확장기업

일일매도 100여명 150여명 등 일일매도 100여명 150여명 등 일일매도 100여명 150여명 등

합심/수확계산

미도정식	2,800원
미도정식	1,200원
미도정식	1,800원

총인원 50명 기준 (당사주석 50석)

문의: 234-0001